

순정이

연중 제27주일(군인주일)

제1독서 : 이사5, 1-7

제2독서 : 필립 4, 6-9

복음 : 마태 21, 33-43

"하느님의 평가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필립 4, 7)



군, 선교의 장



정삼권 신부 / 상무대 성당(군종)

오늘은 제29차 군인주일입니다. 군인주일을 맞이하여 군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지상 사명입니다. 선교의 대상과 장(場)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군은 그 으뜸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에 온 젊은이들은 누구나 외로움과 어려움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험들 속에서 젊은이들은 부모, 형제간의 사랑, 친구와 동료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인간의 존재와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은총의 때"를 지내게 됩니다.

군에서는 냉담층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군 성당에 나오는 젊은이 중 50~60%는 군에 와서 처음으로

성당을 찾아 오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인격지도나 훈련장을 찾아가면 신자인 군인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신자임을 밝힙니다. 신자가 아닌 이들도 반가와 하며 신앙을 갖고자 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이렇게 군은 선교의 황금어장임에 틀림없습니다.

미래의 한국 천주교회와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될 주인공들이기에 더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군종신부, 군종후원회 회원, 신자 간부 가족들이 군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지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한없이 부족함을 체험하며 실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 사목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군인주일을 맞으면서 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합시다. 지난 여름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앞장서 봉사했던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또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앓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특히 요즘 무장공비로 인해 밤낮으로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열심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

박 대 길(벨라도)

한결같은 형제 자매

매사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할 경우,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이니 합심해서 열심히 합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그런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각자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은 침묵하는데 비해, 자신이 아니면 감히 이 일을 해낼 수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행동하는 믿음을 생활화 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있게 수행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일을 찾아 술선수범한다. 그에게는 하느님과 사랑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형제 자매요, 매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느님과 형제 자매는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다.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최근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 중의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로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 이면에는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다.

언제부터인가 알게 모르게 교회 내의 일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점이 눈에 띄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합리성과 효율성에 가려 공동체가 함께 하지 못하는 난제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전 신자가 함께 해냈다.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잡음도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모두

가 한 공동체였던 것이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그 방법을 찾도록 하자.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신앙과 생활의 일치

10월은 ‘전교의 달’이다. 전교의 가장 큰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모두가 감격케 하고, 진심으로 지난날을 회개토록 하며, 앞으로의 삶을 진실로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삶은 중요하다. 신앙인의 삶이 외인의 눈에 아름답게 비칠 때, 백 마디 만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의 하나는 신앙과 생활을 따로 구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이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보고 누가 감명을 받고,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겠는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전교의 달’이 되도록 하자.

순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권인상(요한) / 용담공소 회장

용담 공소는 전라북도 끝에 있는 산골 작은 면 소재지로 금산읍과는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 오기 전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사목위원, 노인교리지도, 연령회장 등을 지냈고, 신앙학교와 각 피정에 빠지지 않았으며, 성체분배 봉사 등 교회 일에 나름대로 열심하였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분주했던 것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없었고 늘 허전하기만 하였다. 그러던중 아내가 사업을 한다고 계를 하더니 사고가 나 차압이 들어오는 일이 생겨 마음 고생이 컸다. 성서공부를 하던중 “그게 어째서 내 아내 탓이야? 너의 탓이지!” 하는 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그 길로 아내에게 전화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길이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용서하니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다. 그때 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이 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찾아 헤맨 하느님을 찾았다.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진실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소외계층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지,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계속해서 질문을 내 안에 던졌다. 마침내 나는 궁전 같은 성당보다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성당을 찾기로 했다. 특별한 일 없는 한 평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몇 해를 두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았다.

용담면은 비록 산골이기는 하지만 부락이 집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건소 건물을 지어 놓았으나 의사가 없는 무의면이었으며,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비해 우리 천주교회는 없을 뿐 아니라 신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곳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생각한 끝에 의료활동을 먼저 벌이기로 하였다. 이곳이 무의면으로서 웬만큼 아픈 병이 아니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나는 일찍이 침구 기술을 약간 습득한 경험이 있기에 무료로 봉사하겠다 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환자가 오면 첫인사가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름은 권인상이고 세례명은 요한입니다”라고 통성명을 한 다음 기도를 했다. “하느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엇을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이곳에 와, 이 환자를 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이 환자의 병을 고쳐 주시어 하느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시술을 하곤 했다. 무료로 침을 놓아 준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먼 전체에 퍼져 하루에 20~30명씩 모여들게 되었고 그 중에는 중환자도 여러분 치유가 되면서 신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곳에 온 지 한 달 만에 예비신자 6명을 모으게 되었고 교리를 가르치면서, 우리들이 기도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지향으로 9일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 온 지 2개월 만인 10월 28일에 용담 공소 회장으로 임명받았다. 하느님께서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마침내 들어 주셨다. 1989년 4월에 성전이 준공되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느님께 요즘은 한 가지 기도의 청을 드리고 있다. 용담에 다목적댐이 건설중에 있다. 이것이 완성되는 날 우리 지역은 물에 잠기고 만다. 그러기에 나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 언제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빈마음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하느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특집

우리는 전교

전교란 무엇인가?

전교는 파견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따온 말이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聖父)는 당신의 외아드님이신 성자(聖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성부로부터 파견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또한 세상에 파견하셨다.

사도들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교회는 이 세상 곳곳에 뿌리내렸다. “그리스도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평신도사도직 2항).”이어서 “평신도들은 복음 선포와 인간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백한 증인이 되고 인간구원에 이바지하므로, 이런 활동으로써 그들은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평신도사도직 2항).”

따라서 ‘전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교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행위인 동시에 이미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도 끊임없는 쇄신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이끄는 행위인 것이다.

왜 전교해야 하는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는 그 본성상(本性上) 전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니 이것은 성부의 계획에 따라 교회가 성자의 파견과 성신의 파견에서 그 기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선교교령 2항).” 그리고 4복음서의 마지막장에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려.”라고 명하셨다.

인류구원이란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 근원된다.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하느님 백성의 기본 사명이므로 전교에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 선교교령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신자들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세계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천상복음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도록, 활동해야 할 영광스러운 임무가 모든 그리스도교도들에게 부과되어 있다(선교교령 3항).” 이와같이 전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임무이며,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요,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한 길이다.

지금 우리는 전교하고 있는가?

미사가 끝날 때마다 사제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하고 우리를 파견하며 이에 대해 신자들은 “천주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한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약속이며 고백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85년도의 영세자는 162,732명이었던 것이 10년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 파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젤로이·켈트하우스
·스텐실, 토펬인팅, 켈트(순바느질)공예
·완제품, 반제품 판매 및 수강생 모집
조 미 현(유리안나)
서신2지구 성원APT 정문 앞
☎ 72-5522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ガン, 관현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테우(알폰소)·황진숙(인젤라)
☎ 88-7717~8

씨에 프랑스(주)
유럽 및 세계 전문 여행사
유럽 배낭여행
(여행 상담을 환영합니다)
조 중 자(베로니카)
덕진광장 앞 서울의원 2층
☎ 72-3335 FAX 72-3065

하고 있는가?

신치구(벨라도) /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장

뒤인 95년에는 136,779명으로 2만 5천여 명이 감소하였다. 전체 신자대영세자 비율은 8.15%에서 4.10%로 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어른 영세자 약 10만 명 중에서 신자들의 전교에 의해 입교한 신자는 33%에 불과하므로 연간 100명의 신자가 한 사람을 영세 입교시킨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자 가운데서 전 가족이 신자인 가정은 47.8%로서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중 일부만 신자가 40.7%, 혼자만 신자인 경우도 11.2%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전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이다. 그래도 우리는 전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냉담자도 해마다 증가하여 '95년말 현재 90만 명이 넘어, 신자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냉담자이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현혹되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이의 구원은 외면하고 나만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며 기뻐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전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도적은 생활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참된 사도적은 말로써 그리

스도를 전할 기회를 갖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신자들을 가르쳐 굳세게 하며, 더욱 열심히 살도록 격려하신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고린 9,16)라고 하신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모든 신도들 마음속에 메아리쳐야 할 것이다. 전교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선교교령 6항). 서울에 거주하는 신자 857명의 영세동기를 알아본 결과, 가족이나 이웃의 직접 권유에 의해 입교한 사람이 261명으로 30.5%였고 신자의 모범을 보고 입교한 신자는 25명으로 2.9%였다.

전교는 전교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자랑스러운 선교 조상들의 후예이다. 많은 이들이 현사회는 정의가 실종되고 불의가 행세하며, 윤리 도덕은 고사성어(古事成語)가 되어 파륜(破倫)되고 부도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타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쇠신하여야 한다. 혼탁한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하겠다.

요심이 (1206) 김병오

북한 잠수함을 발견하여 국방장관이 알게될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나?



놀라지마라. 3시간 35분이내 걸렸단다..



한국 경비병이 강능에서 뛰어와서 보고했나보다.



우리들이 쓰는 '삐삐'를 경비병에게 보내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저희 분당 교경훈(프란치스코)신부님의 회갑을 맞아 함께 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황등 천주교 신자 일동-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아픔의 우물(월간지)

「아픔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 가격 : 1,000원 · 1년구독 : 10,000원
· 연락처 : 성바오로 서원(☎252-3398)

성바오로딸 수도회 성소 모임

· 일시 : 10월6일(일) 오후2시
(매달 첫째주일)
· 장소 : 성바오로 서원
· 문의 : 252-3398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동정성모회 입회자 피정

· 일시 : 10월12일(토)~13일(일)
오후 5시
· 장소 : 서울 수련소
· 회비 : 10,000원
· 문의 : ☎(02) 685-7225
(0653) 841-0714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성소모임

때 : 매월 둘째주일 오후2시
장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2동
68-895(서울본원)
문의 : (02)941-4139

사목단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노연실(세실리아) /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련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정열과 생명까지도 바친다’는 마음으로 지난 8월 22일~9월 22일 군산, 익산 지역에 사회홍보수단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다.

우리가 머문 곳은 노동자의 집이었다. 노동자의 집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바빴다. 책 창고도 만들어야 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여기 저기 손을 보면서 보급자리를 만들었다.

8월 24일 본당 선교를 시작으로 선교의 장을 열게 되었다. 평일에는 병원, 학교, 관공서, 공단 등을 방문하였다. 우리를 초대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쁘게 달려갔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든 책, 카셀, CD, 비디오, 쪽상본 등을 건네 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선을 함께 전했다.

우리는 2~3명씩 짝을 지어 선교지를 찾아갔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환대와 영광을 받기도 했고, 멸시와 냉대와 비참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의 사도직에 대한 사명을 더 깊이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선교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라는 것이다.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깊게 체험하면서 매일 새롭게 준비해 갔다. 푸근하고 인정 많은 전라도 지역성은 우리의 사도적 사랑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윤리적, 정신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더 빨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우리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유가 없었다. 우리의 소리에 무관심한 현실을 만날 때 우리의 가난함을 체험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가져간 매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미했다. 또한 우리의 책을 보면서 “수녀님들은 어찌면 이렇게 좋은 책만 가져오셨어요”하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반기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의 사도직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힘을 얻었다. 본당 신부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수녀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교회 안의 다양한 부를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본당 15곳과 병원, 학교, 관공서, 공단 등 45여 곳을 방문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곳곳에 일으켜 주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주님의 말씀이 뿌려진 전주교구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 풍요로운 교구가 되기를 빌어본다.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유 순 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네비스 숭강상 앞
 ☎ (주)82-2347 (야)225-5755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여전문점
 메이크업, 신부화장
 임 혜 연(엘리사벳)
 전동백화점 앞 에스쁘리 2층
 ☎ 85-5041

진도 패션 전주점

모피, 무스탕, 남성복 전문매장
 · 9월20일까지 세일(50%~20%)
 · 연중무휴
 순한성(바오로)·정정남(가타리나)
 전주시 교사동(구)역전오거리 친보당
 ☎ 231-2005~7

015 팔달통신

- 전북이동통신 팔달로 대리점 -
 휴대폰, 카폰, 호출기
 오 현 중(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0015~6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 때 : 10월1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소룡동 성당
- ❖ **옥봉 수산 공소 봉헌식**
· 때 : 10월13일(일) 오후 2시
· 장소 : 옥봉 수산 공소
- ❖ **사목방문**
· 때 : 10월11일(금)
· 장소 : 진안, 임실성당
- ❖ **사무장(원) 소풍**
· 때 : 10월7일~8일
· 장소 : 홍도
- ❖ **에·신 월모임**
· 때 : 10월13일(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 **사회복지 월례미사**
· 때 : 10월7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제6기 레지오마리아 간부학교**
· 때 : 10월5일~26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6시
· 장소 : 전동 성당 교육관
 오룡동 성당

- ❖ **가톨릭 약사회**
· 때 : 10월10일(목) 12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평협회의실
· 지도 : 범석규 신부
- ❖ **세계 파티마 순례 성모상 전주방문**
· 환영식 및 대관식 미사 :
 10월8일 오후 8시, 덕진 성당
 주례~이병호 주교
· 방문기간 : 10월8일 오후 8시~
 11일 낮 12시
- ❖ **천호 피정 안내**
· 때 : 10월12일~13일
· 주제 : 조상들의 성서생활
· 감사 : 김진소 신부
· 때 : 10월 17일(목)
· 주제 : 남미에서의 선교체험
· 감사 : 김윤섭 신부
· 문의 : 73-6600
- ❖ **세계인권포스터전**
· 때 : 10월4일~10일
· 장소 : 중앙 성당 대강당
· 문의 : (053) 426-2533

- ❖ **안복진 신부 주소**
Korean Catholic Mission
668 Rue de Courcelle
Montreal, Que, H4c 3c5
CANADA
☎(001)-1-514-989-9816
- ❖ **이명재 신부 주소**
Sanctuario de San Antonio Church
P. o. Box 3215 M. C. C. Mackinley Road
Forbes Park, Makati Metro
Manila 1220, PHILIPPINES
☎001(002)-63-2-843-8837
- ❖ **김영수 신부 주소**
Institute of st. Anselm
Elgar Road, Cliftonville
Kent, CT9 2EU
U. K
☎001(002)-44-1843-226699
- ❖ **기억할 사제**
10일 송남호(요셉) 19주기
- ❖ **축! 영명**
13일(성에드와르도) 김의철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군인을 위한 기도

평화의 주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조국을 지키는
모든 군인을 위해서 기도드리나이다.
그들의 젊음과 헌신을 굽어보시어
정의롭고 평화를 이루는
참된 군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주소서.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장병들은

복음을 생활하는데 더욱 충실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장병들에게는
당신의 자녀되는 영광과 은총을 주소서.
또한 전·후방 각지에서 군 사목에 전념하는
군중 사제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 군인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정성어린 기도와 후원으로 일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천주교 군중교구장 정명조 주교 인준)

변원구 한의원

변 원 구(예로니모)
허 정 자(수 산 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옆
☎ 252-1783
253-6355~6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전삼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서중로타리 동서중권 맞은편
☎ 252-0103~4

대건관광 여행사

가을맞이 새 상품으로 여행자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대건관광여행사
강 예 순(프란치스카)
김 옥(바 오 로)
정읍시 수성동 중삼병원 앞
정읍시 상평동 공설운동장 앞
☎33-0877~8, 32-3893~4

국내입양수기 공모

- 원고내용 : 국내입양체験수기 또는 성공사례 등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접수기간 : 10월1일~11월30일
- 접수및문의 : ☎(02)764-4741~2
- 참가정입양원(성북구 성북2동 9-15)

(주)청호 인터내셔널

사업에 동참하실
교우님을 모십니다.
김 해 영(베네딕도)
대우 B/D 10층
☎ 85-8090~1
호출 012-677-7650

수원 조경

조경설계, 잔디, 자연석
묘지공사, 주택조경, 특수조경
진 일 탁(세례자 요한)
서학동 좁은목 약수터 앞
☎(0652)86-5599, FAX. 87-9192
휴대폰 011-680-5599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무 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 배
F A X 82-9664 수 너 율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축! 본당의 날

- 제1부: 미사-전 10시30분, 치명자산
- * 전 9시, 후 7시 미사없음
- 제2부: 장기자랑-미사 후

1. 군인주일: 2차 헌금 있음.
2. 여성 55차 꾸르실로 수료: 유재간(안나), 유수현(라헬)
3. 사무장(원) 소풍: 7일~8일
4. 불동성당 신축기금을 위한 바자회 티켓 판매: 사무실 1장-천원
5. 모임: ①부녀회-9일, 어머니 미사 후
②장우회, 대건회-13일, 공식미사 후
6. 금주 전례: 새벽-중노1구역, 저녁-중노2구역
공식 안내-장우회, 해설-이봉기, 독서-①한기성 ②황의숙
신자들의 기도-이수원, 문선자, 봉헌-이영란 부부
7. 차주 전례: 새벽-중노3구역, 저녁-중노4구역
공식 안내-대건회, 해설-진경숙, 독서-①서남석 ②유재간
신자들의 기도-서용문, 박운순, 봉헌-장성복 부부
8. 금주 청소: 중노 6, 8반
9. 차주 청소: 중노 3, 9반

□ 지난주 봉헌금: 1,145,410원 □ 교무금: 1,865,00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무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 너 율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오늘: 군인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중·고학생 성가경연대회: 6일(일) 9시30분~후 5시, 윤호관
2. 금주 모임: ①꾸리아-오늘 후 2시, 성당
②성심회-9일(수) 전 10시30분, 회합실
③자모회-10일(목) 레지오회합 후, 회합실
④울뜨레야-10일(목) 후 7시30분, 회합실
3. 차주 모임: 프란치스코성회-13일(일) 후 2시, 강당
4. 만남의 시간: 송원반-9일(수), 안산테 피아노학원, 후 8시, T. 82-4792
5. 금주 전례: 공식미사 해설-김중호(프란치스코)
독서-①백창선(라파엘) ②양미숙(소피아)
6. 차주 전례: 공식미사 해설-송정옥(로사)
독서-①유철갑(베드로) ②이서화(보나)
7. 청소 안내: ①금주-사랑하올 어머니Pr.
②차주-사랑의 샘Pr.

□ 지난주 봉헌금: 1,143,100원 □ 교무금: 1,772,000원

*** 복 자** 주임신부 86-3453 사 무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너 율 86-3454 사목회장 박 심 기

◎ 10월은 로사리오성월(전교의 달)입니다.

1. 오늘: 성소 후원회비 내는 날
 2. 오늘: 군인주일 2차 헌금 실시
 3. 중·고 성가 경연대회: 오늘, 윤호관
 4. 여성 55차 꾸르실로: 김순형(루시아) 수료
 5. 선교 교육: 5일~6일, 나바위 피자점의 집
김홍현, 김용식, 김영기 참가
 6. 본당 레지오 단원교육: 10일(목) 후 2시~5시, 본당
 7. M.E 모임 임원: 회장-신일균·윤귀자 부부(유임) 총무-박
남수·이정희 부부(유임) 부회장-장세환·이정순 부부 선출
 8. 금주 모임: 성우회, 대건회, 사목회
 9. 주간 모임: ①구역분과회-8일(화) 전 11시
②안나회-10일(목) 전 10시
③자모회-10일(목) 저녁미사 후
④여성분과회-12일(토) 전 10시
 10. 차주 모임: 요셉회, 꾸리아, 청년회
 11. 금주 전례: 해설-황만금, 독서-라경섭 부부,
봉헌-강영진 가족
 12. 차주 전례: 해설-김순형, 독서-이준철 부부,
봉헌-배영환 가족
 13. 성당 청소: 12일(토) 사도의 모후Pr., 이 땅의 빛Pr.
 14. 감사헌금: 20만원-안순금(수산나)
- 지난주 봉헌금: 689,000원 □ 교무금: 1,376,5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무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율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수 치 율 84-8347 사목회장 주 환

1. 금일: 군인 주일 2차 헌금 실시
2. 예비자 교리 개강: 금일 공식미사 후, 강당
3. 레지오 옥의 행사: 금일, 연풍성지
4. 레지오 옥의 행사관계로 5시 미사와 울뜨레야는 없습니다.
5. 주간 모임: ①사라회-8일 전 11시
②나자렛회-8일 전 11시
③예루살렘회-9일 전 11시
④베에타회-9일 전 11시
⑤여성 단체 임원 모임-9일 후 3시
⑥돈보스코회-9일 후 7시 30분
⑦다비드회-12일 후 3시
6. 성심 유치원 소풍: 10일(목) 자연농원
7. 감사헌금: 육심오만원(익명)-감사합니다.
8. 차주 모임: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요셉회-후 6시
④사목회-후 8시

※ 성지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588,630원 □ 교무금: 2,249,0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무 실 85-6652 주임신부 김 병 업
F A X 85-6652 수 너 율 85-6653 사목회장 감 덕 용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로사리오(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칩시다.
◎ 오늘은 군인주일: 군인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 -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안나회
3. 병자봉신체: 9일(수)-사무실에 신청
4. 이순기(요한)형제 부친탈상: 10일(목), 자택
5. 중·고학생 성가 경연대회: 오늘, 윤호관-많은 관심바람.
6. 성가에 관심있으신 분 환영: 수녀님, 전례부장에게 신청바람.
7. 성체강복: 10일(목) 저녁미사 중
8. 성당 청소: 금주-사랑하올 어머니Pr.
차주-셋별Pr.
9.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양주태 ②송정자
봉헌-남현준 가정
10.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박귀철 ②김갑자
봉헌-김완식 가정

□ 지난주 봉헌금: 434,860원 □ 교무금: 1,750,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 너 율 232-5004 주임신부 이 삼 섭
F A X 232-5003 사 무 실 232-5005 사목회장 감 삼 근

◎ 전신자 성지 순례: 청양 다락골 줄무덤 13일 7시

- * 6일까지 전신자 신청바람.
 - ◎ 영세식: 12일(토) 후 7시30분
1. 오늘 모임: ①평화의 여왕Cu. -후 2시30분
②성지회-공식미사 후
 2. 주간 모임: ①제대회-8일 전 10시
②본당청소 후원회-11일 어머니미사 후
 3. 차주 모임: ①임마누엘, 한빛, 노엘, 성소후원회-10시미사 후
②형제기도회-15일 후 8시 30분
 4. 불동성당바자회 티켓판매: 적극 참여합시다.
 5. 감사드립니다.
①성전 신축 봉헌금 수입과좌(1구좌: 100만원)
문복순0.1, 김성환1, 김수남1, 서명래1, 박순자2, 김행자1, 박형영
3, 이미자3, 이선례0.2, 박준상1, 익명3, 강정자2, 이영신10, 최재
문1.5, 이금순0.5, 허정금1, 탁옥자0.5, 익명4, 김오남0.5, 김혜
정2, 문영실3, 소계: 41.3, 총계: 415.1
②성전신축봉헌금 납부: 최희자30만, 임생빈2만, 나마리아1만,
김수만1만, 최수윤10만, 서명래10만, 강정달10만, 성지연10만, 이
기권10만, 홍성춘35만, 이정식10만, 김순희10만, 조재웅10만, 최
계문20만, 이후영20만, 강경남5만, 이종두30만, 김부영10만, 박홍
필10만, 박남희10만, 정영남3만, 김오목20만, 문순덕10만, 이만기
10만, 박순례1만, 익명10만
소계: 2,980,000원 총계: 59,967,020원
- 지난주 봉헌금: 1,828,010원 □ 교무금: 2,600,000원